

"한국 유조선, 지난 6일 추적 장치 끈 채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록 2026.05.12 09:58:58 | 수정 2026.05.12 10:09:06



[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란의 봉쇄로 발이 묶인 벌크선과 유조선들이 지난달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5.12.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 시간) 시리아 국영 통신 사나 등 외신에 따르면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박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한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다.

다만 이 배를 어느 업체가 용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금상선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와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 I는 이달 말 베트남 응이손 경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사나 통신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